혼미노시/미노 일본 종이 도구 박물관 후쿠베

와시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가 섬유를 섞은 액체를 뜨기 위한 다케스입니다. 다케스는 대나무를 쪼개고 깎아 가공한 대쪽 약 3,000 개를 명주실로 엮은 것입니다. 다케스를 하나 만드는 데는 보통 일주일이 걸리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이 이 지역에는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사진에는 다케스의 제작 공정과 대나무를 쪼개고 깎는 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가늘게 가공한 대나무는 단면의 기울기에 따라 정성 들여 조합하고, 종이 표면이 매끄러워지도록 명주실로 묶습니다. 장인이 다다미 위에서 다케스를 만드는데, 이 다케스는 명주실 실패가 많이 달린 목판에 묶여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나무를 자르는 날붙이나 대나무에 서서히 작아지는 구멍을 뚫어 원둘레를 좁히는 강철제 선반과 집게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